

FPG, 2005년 에틸렌 430만톤으로!

중국 투자계획도 조만간 구체화 ... 타이완 정부 투자규제가 걸림돌

FPG(Formosa Plastic Group)는 총액 30억달러 이상을 투자해 No.3 에틸렌 120만톤 크래커를 건설하는 麥寮 소재 No.6 Combinat 증설을 수급 밸런스 및 FPG의 사업운영상 중요한 프로젝트로 삼고 추진하고 있다.

중국대륙에 대한 투자의 구체적 계획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수요호조가 계속되는 중국에서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라 밝혀 중국 투자에 나설 가능성도 엿보이고 있다.

FPG가 추진하고 있는 麥寮에서의 석유화학 차기 프로젝트인 제4기 확장 프로젝트는 기초 석유화학제품의 FPC, Nanya Plastics, FCFC 3사가 SM(Styrene Monomer) 60만톤, Phenol 30만톤, PP(Polypropylene) 30만톤 플랜트를 건설하는 것이다. 투자액은 30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보이며 2003년 5월말 기초공사에 착수해 2005년 완공될 예정이다.

FPG 그룹은 1990년대 타이완의 麥寮, 미국 텍사스주에 잇따라 대형투자를 실시해 석유화학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적인 그룹으로 성장했다.

麥寮에서는 No.1 45만톤, No.2 90만톤의 에틸렌 설비인 나프타 크래커 건설과 제3기의 Debottlenecking에 따른 생산능력 확장을 통해 현재까지 단독기업, 단독거점으로서 세계 최대급의 에틸렌 160만톤 생산체제를 구축했다.

제4기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麥寮 소재 에틸렌 크래커는 생산능력이 280만톤까지 확대되며 미국의 150만톤을 더하면 에틸렌 생산능력이 430만톤에 달해 미국 Dow Chemical, 사우디 SABIC 등에 이어 세계 유수의 석유화학 메이커로 부상하게 된다.

FPG 그룹이 급성장한 것은 공급-수요에 대한 대응, 저코스트 지향 등 시기적으로 적절한 정책을 거듭했기 때문으로, 경쟁상대가 적은 타이완의 국내환경도 뒷받침이 됐다. 그러나 전략적, 계획적으로 확장을 추진하지는 않고 있다.

한편, FPG는 浙江省 등을 후보지로 에틸렌 크래커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상태로 일반적으로 대륙투자는 소규모로 시작해 확대시켜나가는 것이라고 판단해 가공제품 단계부터 진출하고 있다.

그러나 코스트가 낮고 막대한 수요가 있는 대륙에서 자급화가 진전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반응을 보여 조만간 에틸렌 프로젝트를 구체화시킬 가능성을 시사했다.

FPG의 중국투자는 타이완 정부의 투자규제 등이 걸림돌인데, 浙江省 프로젝트가 실현되면 FPG 그룹은 타이완 해협의 양 해안에 석유화학 거점을 확보하고 중국 및 아시아 시장을 겨냥한 강력한 사업거점을 구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Chemical Journal 2003/10/20>